



결핵인물열전 ① / 박병래 박사

역사는 시대를 배경으로 사람이 엮여 간다. 우리 나라 결핵의 역사를 말할 때 결핵 퇴치를 위하여 헌신하고 큰 업적을 남긴 인물들을 빼놓을 수 없다. 그중에는 이미 일제 강점 하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외국인도 적지 않지만 여기에서는 8.15 이후 필자가 직접 만나고 그 행적을 익히 알거나 함께 일을 한 분들을 기록과 기억을 더듬어 소개하고자 한다.

수정처럼 맑게 살다간 선비, 박병래 (朴秉來)

김대규/대한결핵협회 고문

신학문 공부 위해 어릴적 상경

수정(水晶)은 박병래의 아호이다. 그를 잘 아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인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아호라고 공감한다.

선대부터 독실한 가톨릭 가문에서 태어나 교육자인 부친의 훈도 아래 의사로서 또는 신앙인으로서 평생 고통받는 환자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했으며 애지중지 주장했던 문화재 이조백자 수백 점을 고스란히 국가에 기증하고는 조용히 눈을 감은 이 시대의 선비 박병래.

그는 1903년 5월 27일 충남 논산군 논산읍 옥동(旭洞) 78에서 출생했다. 어릴 적부터 두뇌가 명석했는데 논산지방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프랑스 신부의 권고로 부친 박준호(朴準鎬)와 함께 신학문을 공

부하기 위하여 일찍 상경했다.

박병래는 소학교를 마치고 양정고등보통학교에 진학했으며 인술로서 신앙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의사가 될 것을 결심하고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체구는 단소하나 부지런하고 명랑했으며 사리판단이 빠르고 대인관계가 원만했다. 1924년 경의전을 졸업하고 의사가 된 그는 총독부의원 이모(伊藤)내과 교실에 입국했는데 총독부의원은 1928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으로 재발족 했다.

박병래는 대학병원에서 각종 내과 질환을 정규적으로 공부하면서 호흡기질환 중에서도 가장 많은 폐결핵환자들의 비참한 상황을 보고 결핵을 전문으로 하게 되었다.

한편, 그의 부친 박준호는 1924년 5월 3일 동성고등학교의 전신인 남대문상업학교(1931, 동성상업고등학교로 변경) 제 2대 교장으로 취임하여 1936년 9월 19일 타계할 때까지 12년간 재임하면서 한편으로는 천주교청년연합회를 이끌고 “가톨릭청년”이란 잡지를 발간하였다.

성모병원 초대원장으로

천주교 조선교구 설정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병원 설립이 결정되자 1935년 3월 11일 경성교구는 교구청 바로 이웃의 경성부 영락정 1정목(京城府永樂町 1丁目) 39번지 소재 일본인 소유 무라가미(村上)병원(대지 540평, 건물 350평)을 매입해 이듬해 봄 개수공사를 완료했다.

1936년 5월 11일 개원한 성모병원 초대 원장에는 박병래가 취임했으며 당시 교구장 라리보(Larribeau) 주교는 병원 명칭을 해성으로 할 것을 제안했으나 박병래가 성모(聖母)로 할 것을 주장하여 성모병원으로 결정되었다.

박병래가 성모병원장으로 부임할 때 월급을 3백원으로 결정 보았는데 그의 부친이 젊은 사람이 돈이 많으면 안된다 고 2백원을 주도록 한 일화는 유명하다.

병실 수 24개에 의사 4명, 간호부 10명의 인원으로 출발한 성모병원은 우선 내과와 소아과만을 진료했는데 박병래는 내과 중에서도 결핵이 전문이었으므로 많은 결핵 환자들이 모여들었다.

현재 성심여고가 있는 용산 원효로 4가 1번지에는 예수성심신학교가 있었는데 학생들을 원산의 덕원신학교로 옮기고 그 자리에 성모병원 분원을 개설했다.

1944년 4월 29일 개원한 분원은 35개 병상이 거의 결핵병상으로 사용되었다.

광복 후 조선결핵예방협회 설립

8.15광복 후 미군의 군정이 실시되자 1946년 3월 20일 의학계의 원로들이 회합하여 결핵 대책을 논의한 후 조선결핵예방협회를 조직하고 회장에 미군정청 보건후생부장 이용설(李容晷)이 천거한 성모병원장 박병래를 추대했다.

군정청 보건후생부내에 사무소를 설치했던 조선결핵예방협회는 1946년 12월 사업을 더욱 원활히 추진하고자 시내 중구 예관동(藝館洞)에 있는 서울 중앙보건소로 사무소를 이전했다.

미군정이 끝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기구 개편으로 보건 행정기구와 예산이 축소되어 사회부에 속하게 되었으며 조선결핵예방협회는 크리스마스 썰 발행을 구상했으나 뚜렷한 활동을 못한 채 있다가 6.25 동란으로 사실상 기능이 정지되고 말았다.

1950년 6.25동란이 발발하자 박병래는 그 해 11월 24일 공군에 입대하여 소령에 임관되고 공군병원 내과에 배속되었다. 마산에 피난 와 있던 공군병원에서 내과과장, 진료부장, 부원장을 거쳐

1953년 2월 15일 병원장에 취임했다. 당시 공군병원엔 신 마산의 일본식 목조 2층 건물을 접수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그는 내과과장으로 있으면서 1951년 3월 마산에서 동쪽으로 약 4km 떨어진 곳에 공군병원 부설로 결핵요양소를 설치하여 늘어나는 결핵 장병을 수용 치료했다. 공군병원 시절 새로운 반려자로 최구(崔鳩)여사를 맞이한 박병래는 상처로 인한 실의에서 벗어나 차츰 활기를 되찾아 갔다.

보람과 시련

6.25동란으로 국토는 초토화되고 피난 생활의 고달픔과 궁핍으로 결핵이 급속히 만연되자 박병래는 1953년 11월 6일 세브란스병원 강당에서 대한결핵협회 창립총회를 열고 범국민적 민간 항결핵단체를 출범시키는데 산파역을 담당했다.

박병래는 1954년 8월 18일 공군의무감으로 임명되었으며 1956년 3월 20일 대령으로 예편되면서 의무감 자리를 물러났다. 그는 군 복무 중 금성 총무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전역직후 가톨릭의대가 신설되자 1956년 3월 학장 겸 병원장에 취임하였으나 오래 있지는 않고 1957년 2월 운현궁 내에 집을 얻어 사영으로 성누가병원을 개원했다.

이곳에서 몇 년간 개인병원을 운영하다가 환자가 늘어나자 관철동에 입원실

을 갖춘 5층 병원을 신축하여 이사하고 더 많은 환자를 진료했는데 그 무렵 대한내과학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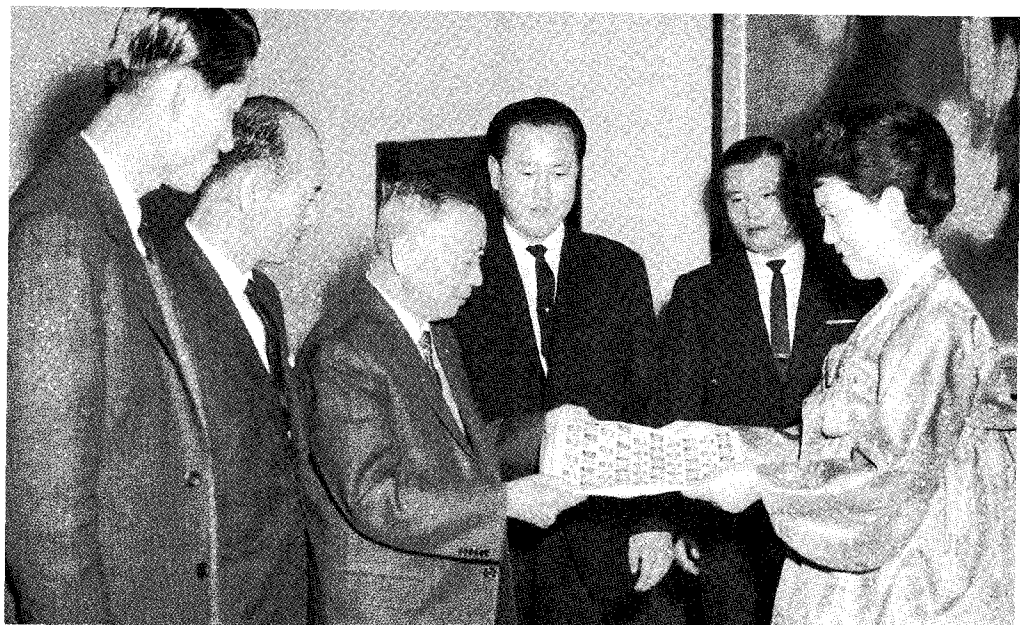
1963년 5월 대한결핵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제6대 회장으로 선출된 박병래는 1962년도부터 추진된 보건소망을 통한 국가결핵관리대책에 호응하여 크리스마스 쉴 외에 극장모금과 고궁모금을 개척했으며 늘어난 예산으로 각 시·도에 결핵관리의사를 1명씩 배치하고 9개 시·도지부에 결핵균검사소를 설치했다. 또한 본부에 엑스선필름중앙판독소를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향상된 기술로 환자 발견과 진단의 정밀도를 높이고 전국 보건소의 결핵관리를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인력배치와 체계를 확립했다.

그러나 1964년 6월 26일 총무과장 등 직원 2명이 경리부정으로 검찰에 구속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여 도하 각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으며 결핵관계자는 물론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으로 박병래 회장과 전 임원은 긴급 소집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평생 모은 문화재 국가에 기증

박병래는 의사가 된 지 몇 년 후부터 도자기 특히 이조자기에 심취하여 그 수집과 감상에 몰입했는데 이조자기에 대한 그의 차원 높은 심미안과 깊은 애정은 이



1963. 11. 장충동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공관에서 박병래 대한검핵협회 회장이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을 대신한 육영수 여사에게 크리스마스 썰을 증정하고 있다. 좌로부터 김대규 공보부장, 권숙표 시무총장, 박병래 회장, 한국진보사부 차관, 조상호 의전비서관

미 1930년대부터 세상에 알려져 있었다.

일본인 수집가들이 설치해 놓은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이조자기의 가작들을 추려내고 그것들을 스스로 거두며 체계적으로 간직함으로써 실질적인 문화적 항일에 기여했다.

그는 1974년 봄 그가 그토록 정성을 쏟아 일생동안 수집하고 애장하던 이조자기 362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다. 민족의 자랑스러운 문화재는 개인의 재산이기 전에 국가와 민족의 것이어야 한다는 신념에서 이루어진 그의 아름다운 결단은 물론 아무런 조건도 없었다.

그는 그 소중한 민족문화재가 간직한 생명력을 국가적 차원으로 환원시켰으며 민족 문화재를 아끼고 거두는 자의 자세

를 아울러 밝혀 주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에 대하여 1974년 5월 1일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으며 같은 해 5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박병래 박사 수집 이조도자 특별전"을 개최했다. 그러나 그 특별전 테이프 커팅 자리에 박병래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 특별전을 10여 일 앞둔 1974년 5월 15일 부인 최구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71세의 생을 마감했다. 슬하에는 1남 1녀를 두었다.

국립박물관에서는 그의 높은 뜻과 기증품의 가치를 길이 보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하여 그의 아호를 딴 수정(水晶)기념실을 마련하여 상설 전시하고 있다. ¶